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 박호용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전문관)

- '특별자치도'란 ① 일반적인 도와 달리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②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권한 하에 도정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함.
- 지금까지 출범한 특별자치시·도는 제주(2006)·세종(2012)·강원(2023)이며,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 역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시작함.
- 먼저 특별자치시·도가 된, 제주·세종·강원과 차별성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분야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새롭게 출범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설문을 실시하였음.

## 설문 개요

- (설문기간) 2023. 11. 13.(월) ~ 11. 23.(목) 11일간
- (설문방법) 온라인(유레카 시스템) 조사
- (설문대상) 도내 중·고 학생, 유·초·중·고·특수 학부모 및 교직원
- (응답인원) 총 3,437명 (학생 451명, 학부모 1,833명, 교직원 1,153명)
- (설문문항) 총 9문항 (서술형 1문항 포함)

# I

## 설문 결과 분석

### 📖 (1번 문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에 대하여, 복수(5개) 선택하는 설문을 실시함.

-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소통’을 가장 강조**하였으며, 설문 대상들이 각각 1~5순위로 선택한 ‘키워드’ 중 공통으로 강조한 가치는 다음과 같았음.
  -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공통으로 강조한 방향은 ‘소통’과 ‘공정’이며,
  - 학생과 학부모가 공통으로 강조한 방향은 ‘창의성’, 학생과 교직원이 공통으로 강조한 방향은 ‘협력’, 학부모와 교직원이 공통으로 강조한 방향은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었음.
  
- ‘소통’, ‘공정’, ‘창의성’, ‘협력’, ‘다양성’, ‘지속가능성’ 등 응답자가 제시한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문)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는?  
(5개 복수 선택)

| 구분  |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
|-----|--------------------|----------------------|----------------------|
| 1순위 | 소통<br>247명 (11.7%) | 소통<br>1,277명 (14.5%) | 소통<br>701명 (12.7%)   |
| 2순위 | 평등<br>227명 (10.7%) | 공정<br>979명 (11.1%)   | 공정<br>593명 (10.8%)   |
| 3순위 | 공정<br>204명 (9.6%)  | 다양성<br>899명 (10.2%)  | 지속가능성<br>537명 (9.8%) |
| 4순위 | 협력<br>178명 (8.4%)  | 지속가능성<br>738명 (8.4%) | 협력<br>519명 (9.4%)    |
| 5순위 | 창의성<br>153명 (7.2%) | 창의성<br>722명 (8.2%)   | 다양성<br>410명 (8.5%)   |

## 📖 (2번 문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분야

5개 교육분야(①생태전환교육, ②디지털융합교육, ③글로벌교육, ④지역특색반영교육, ⑤건강안전교육)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교육분야에 대하여, 복수(2개) 선택하는 설문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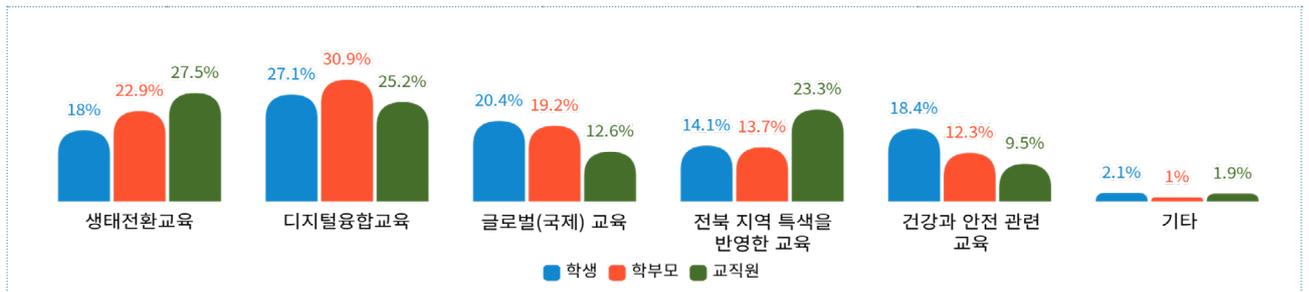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교육분야에 대하여,

- 학생과 학부모의 공통 1순위는 ‘디지털융합 관련 교육(27.1%, 30.9%)’이었고,
- 교직원들은 ‘생태전환 관련 교육(27.5%)’를 1순위로 선택하였음.

### ▣ 응답자 간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았음.

- ‘생태전환 관련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교직원들은 1순위(27.5%)이고 학부모는 2순위(22.9%)인 반면, 학생은 4순위(18.0%)였음.
- ‘글로벌(국제) 관련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학생은 2순위(20.4%)이고 학부모는 3순위(19.2%)인 반면, 교직원들은 4순위(12.6%)였음.

### (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두고 발굴해야 할 특별법(교육)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
|-----|--------------------------------|--------------------------------|--------------------------------|
| 1순위 | 디지털융합 관련 교육<br>244명 (27.1%)    | 디지털융합 관련 교육<br>1,133명 (30.9%)  | 생태전환 관련 교육<br>635명 (27.5%)     |
|     | 글로벌(국제) 관련 교육<br>184명 (20.4%)  | 생태전환 관련 교육<br>838명 (22.9%)     | 디지털융합 관련 교육<br>581명 (25.2%)    |
| 3순위 | 건강과 안전 관련 교육<br>166명 (18.4%)   | 글로벌(국제) 관련 교육<br>704명 (19.2%)  | 전북 지역 특색 반영 교육<br>537명 (23.3%) |
|     | 생태전환 관련 교육<br>162명 (18.0%)     | 전북 지역 특색 반영 교육<br>504명 (13.7%) | 글로벌(국제) 관련 교육<br>291명 (12.6%)  |
| 5순위 | 전북 지역 특색 반영 교육<br>127명 (14.1%) | 건강과 안전 관련 교육<br>450명 (12.3%)   | 건강과 안전 관련 교육<br>219명 (9.5%)    |
|     | 기타<br>19명 (2.1%)               | 기타<br>37명 (1.0%)               | 기타<br>43명 (1.9%)               |

## 📖 (3번 문항) 각 교육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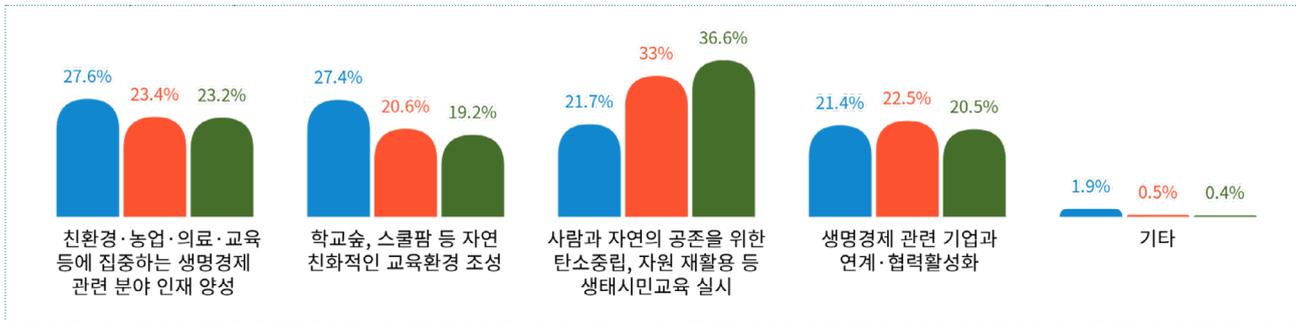
5개 교육분야(①생태전환교육, ②디지털융합교육, ③글로벌교육, ④지역특색반영교육, ⑤건강안전교육) 각각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하여, 복수(2개) 선택하는 설문을 실시하였음.

### 🌱 (3-1번 문항) 생태전환교육

▣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으로,

- 학부모와 교직원의 공통 1위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탄소중립, 자원 재활용 등 생태시민교육 실시(33.0%, 36.6%)’이었고,
- 학생은 ‘친환경·농업·의료·교육 등에 집중하는 생명경제 관련 분야 인재 양성(27.6%)’을 1순위로 선택하였음.

(문)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상  | 순위  | 응답                                      | 응답자 수 및 비율     |
|-----|-----|---|----------------|
| 학생  | 1순위 | 친환경·농업·의료·교육 등에 집중하는 생명경제 관련 분야 인재 양성   | 249명 (27.6%)   |
|     | 2순위 | 학교숲, 스쿨팜(학교텃밭) 등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 247명 (27.4%)   |
|     | 3순위 |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탄소중립, 자원 재활용 등 생태시민교육 실시 | 196명 (21.7%)   |
|     | 4순위 | 생명경제 관련 기업(친환경·농업·의료·교육)과 연계·협력 활성화     | 193명 (21.4%)   |
|     | 5순위 | 기타                                      | 17명 (1.9%)     |
| 학부모 | 1순위 |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탄소중립, 자원 재활용 등 생태시민교육 실시 | 1,208명 (33.0%) |
|     | 2순위 | 친환경·농업·의료·교육 등에 집중하는 생명경제 관련 분야 인재 양성   | 857명 (23.4%)   |
|     | 3순위 | 생명경제 관련 기업(친환경·농업·의료·교육)과 연계·협력 활성화     | 825명 (22.5%)   |
|     | 4순위 | 학교숲, 스쿨팜(학교텃밭) 등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 756명 (20.6%)   |
|     | 5순위 | 기타                                      | 20명 (0.5%)     |
| 교직원 | 1순위 |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탄소중립, 자원 재활용 등 생태시민교육 실시 | 845명 (36.6%)   |
|     | 2순위 | 친환경·농업·의료·교육 등에 집중하는 생명경제 관련 분야 인재 양성   | 536명 (23.2%)   |
|     | 3순위 | 생명경제 관련 기업(친환경·농업·의료·교육)과 연계·협력 활성화     | 472명 (20.5%)   |
|     | 4순위 | 학교숲, 스쿨팜(학교텃밭) 등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 443명 (19.2%)   |
|     | 5순위 | 기타                                      | 10명 (0.4%)     |

**🍃 (3-2번 문항) 디지털융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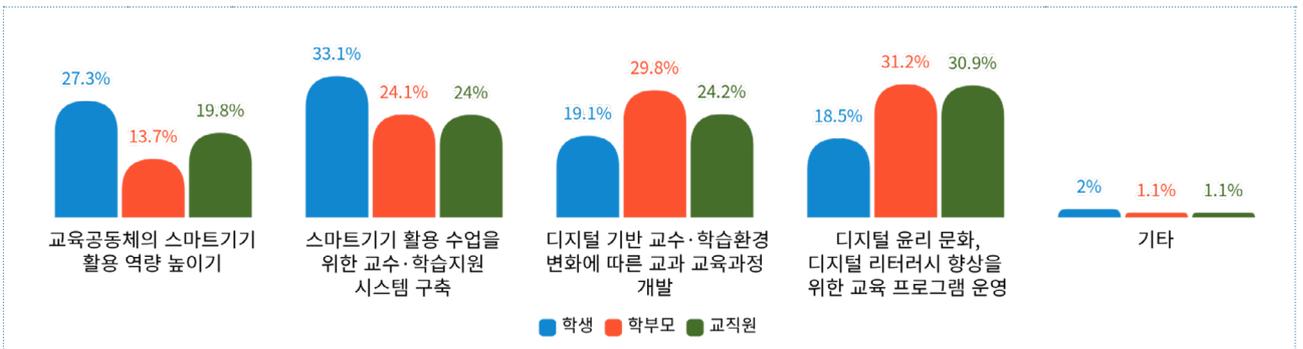
▣ 디지털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으로,

- 학부모와 교직원의 공통 1위는 '디지털 윤리 문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1.2%, 30.9%)' 이었고,
- 학생은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33.1%)'을 1순위로 선택하였음.

▣ 응답자 간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았음.

- '교육공동체의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높이기'에 대하여 학생은 2순위(27.3%)로 응답한 반면, 학부모와 교직원 은 4순위(13.7%, 19.8%)로 응답하였음.
- '디지털 윤리 문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은 1순위 (31.2%, 30.9%)로 응답한 반면, 학생은 4순위(18.5%)로 응답하였음.

(문) 디지털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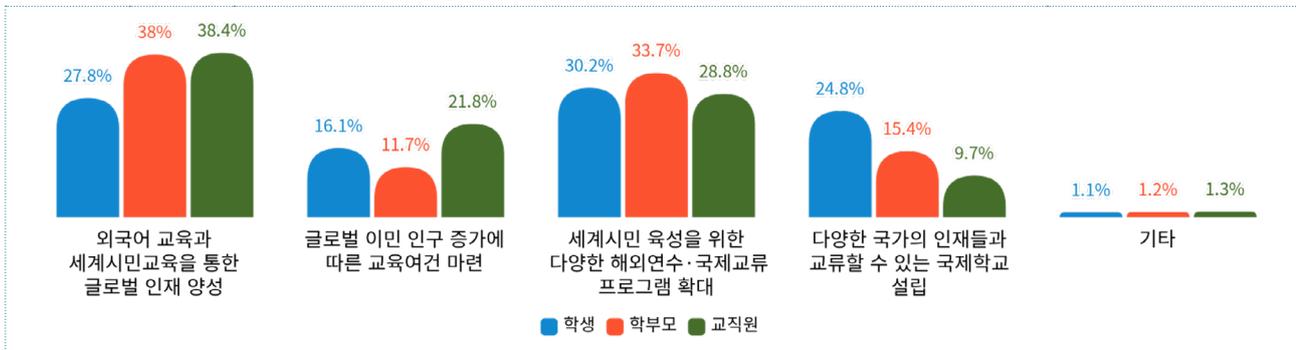


| 대상  | 순위  | 응답                                   | 응답자 수 및 비율     |
|-----|-----|--------------------------------------|----------------|
| 학생  | 1순위 |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 299명 (33.1%)   |
|     | 2순위 | 교육공동체의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높이기               | 246명 (27.3%)   |
|     | 3순위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 172명 (19.1%)   |
|     | 4순위 | 디지털 윤리 문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167명 (18.5%)   |
|     | 5순위 | 기타                                   | 18명 (2.0%)     |
| 학부모 | 1순위 | 디지털 윤리 문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1,144명 (31.2%) |
|     | 2순위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 1,093명 (29.8%) |
|     | 3순위 |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 884명 (24.1%)   |
|     | 4순위 | 교육공동체의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높이기               | 503명 (13.7%)   |
|     | 5순위 | 기타                                   | 42명 (1.1%)     |
| 교직원 | 1순위 | 디지털 윤리 문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712명 (30.9%)   |
|     | 2순위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 558명 (24.2%)   |
|     | 3순위 |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 554명 (24.0%)   |
|     | 4순위 | 교육공동체의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높이기               | 457명 (19.8%)   |
|     | 5순위 | 기타                                   | 25명 (1.1%)     |

**🍃 (3-3번 문항) 글로벌(국제) 교육**

- 글로벌(국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으로,
  - ‘외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학부모와 교직원은 1순위(38.0%, 38.4%)로 학생은 2순위(27.8%)로 선택하였으며,
  -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학생은 1순위(30.2%)로 학부모와 교직원은 2순위(33.7%, 28.8%)로 선택하였음.
-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응답자 모두 글로벌(국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문)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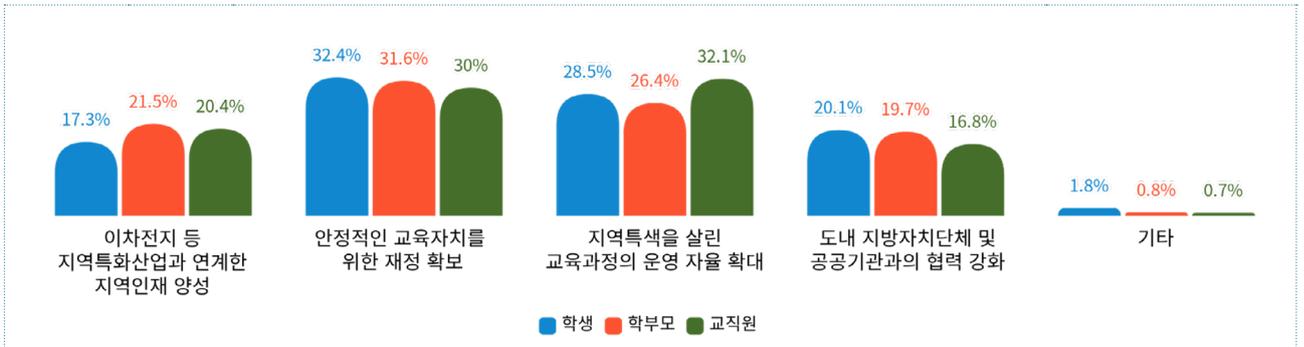


| 대상  | 순위  | 응답                            | 응답자 수 및 비율     |
|-----|-----|-------------------------------|----------------|
| 학생  | 1순위 |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 272명 (30.2%)   |
|     | 2순위 | 외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251명 (27.8%)   |
|     | 3순위 | 다양한 국가의 인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국제학교 설립 | 224명 (24.8%)   |
|     | 4순위 | 글로벌 이민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마련      | 145명 (16.1%)   |
|     | 5순위 | 기타                            | 10명 (1.1%)     |
| 학부모 | 1순위 | 외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1,392명 (38.0%) |
|     | 2순위 |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 1,234명 (33.7%) |
|     | 3순위 | 다양한 국가의 인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국제학교 설립 | 566명 (15.4%)   |
|     | 4순위 | 글로벌 이민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마련      | 430명 (11.7%)   |
|     | 5순위 | 기타                            | 44명 (1.2%)     |
| 교직원 | 1순위 | 외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886명 (38.4%)   |
|     | 2순위 |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 663명 (28.8%)   |
|     | 3순위 | 글로벌 이민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마련      | 503명 (21.8%)   |
|     | 4순위 | 다양한 국가의 인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국제학교 설립 | 224명 (9.7%)    |
|     | 5순위 | 기타                            | 30명 (1.2%)     |

**🌱 (3-4번 문항) 전북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 ▣ 전북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으로,
  - ‘안정적인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 확보’을 학생과 학부모는 1순위(32.4%, 31.6%)로 교직원들은 2순위(30.0%)로 선택하였으며,
  -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 확대’를 교직원들은 1순위(32.1%)로 학생과 학부모는 2순위(28.5%, 26.4%)로 선택하였음.
- ▣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응답자 모두 전북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문) 전북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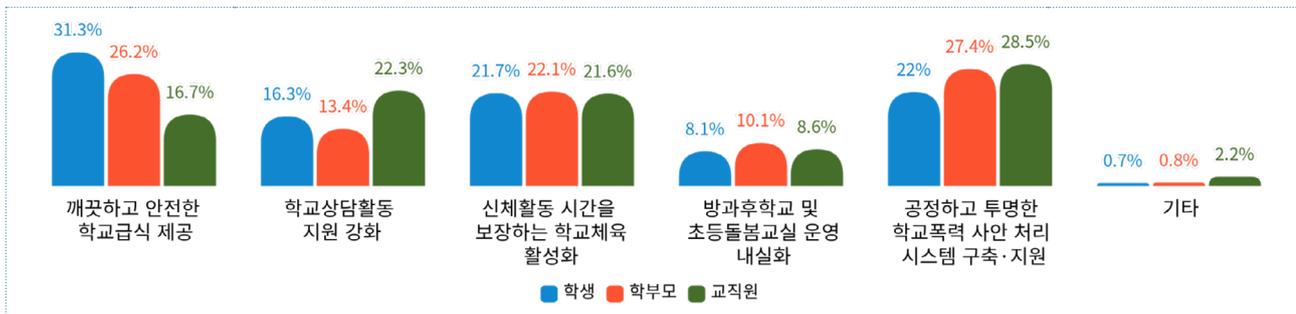


| 대상  | 순위  | 응답                         | 응답자 수 및 비율     |
|-----|-----|----------------------------|----------------|
| 학생  | 1순위 | 안정적인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 확보        | 292명 (32.4%)   |
|     | 2순위 |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 확대   | 257명 (28.5%)   |
|     | 3순위 |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181명 (20.1%)   |
|     | 4순위 | 이차전지 등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 156명 (17.3%)   |
|     | 5순위 | 기타                         | 16명 (1.8%)     |
| 학부모 | 1순위 | 안정적인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 확보        | 1,157명 (31.6%) |
|     | 2순위 |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 확대   | 966명 (26.4%)   |
|     | 3순위 | 이차전지 등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 790명 (21.5%)   |
|     | 4순위 |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722명 (19.7%)   |
|     | 5순위 | 기타                         | 31명 (0.8%)     |
| 교직원 | 1순위 |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 확대   | 741명 (32.1%)   |
|     | 2순위 | 안정적인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 확보        | 691명 (30.0%)   |
|     | 3순위 | 이차전지 등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 470명 (20.4%)   |
|     | 4순위 |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387명 (16.8%)   |
|     | 5순위 | 기타                         | 17명 (0.7%)     |

**🌿 (3-5번 문항) 건강과 안전 관련 교육**

- 건강과 안전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으로,
  - 학부모와 교직원의 공통 1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구축·지원(27.4%, 28.5%)’인 반면,
  - 학생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31.3%)’을 1순위로 선택하였음.
- 응답자 간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았음.
  -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에 대하여 학생은 1순위(31.3%), 학부모는 2순위(26.2%)로 응답한 반면, 교직원  
은 4순위(16.7%)로 응답하였음.
  - ‘학교상담활동 지원 강화’에 대하여, 교직원은 1순위(22.3%)로 응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4순위(16.3%, 13.4%)  
로 응답하였음.

(문) 건강과 안전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상  | 순위  | 응답                            | 응답자 수 및 비율     |
|-----|-----|-------------------------------|----------------|
| 학생  | 1순위 |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 282명 (31.3%)   |
|     | 2순위 |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구축·지원 | 198명 (22.0%)   |
|     | 3순위 | 신체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 196명 (21.7%)   |
|     | 4순위 | 학교상담활동 지원 강화                  | 147명 (16.3%)   |
|     | 5순위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 73명 (8.1%)     |
|     | 6순위 | 기타                            | 6명 (0.7%)      |
| 학부모 | 1순위 |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구축·지원 | 1,005명 (27.4%) |
|     | 2순위 |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 960명 (26.2%)   |
|     | 3순위 | 신체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 811명 (22.1%)   |
|     | 4순위 | 학교상담활동 지원 강화                  | 490명 (13.4%)   |
|     | 5순위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 372명 (10.1%)   |
|     | 6순위 | 기타                            | 28명 (0.8%)     |
| 교직원 | 1순위 |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구축·지원 | 658명 (28.5%)   |
|     | 2순위 | 학교상담활동 지원 강화                  | 515명 (22.3%)   |
|     | 3순위 | 신체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 499명 (21.6%)   |
|     | 4순위 |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 385명 (16.7%)   |
|     | 5순위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 198명 (8.6%)    |
|     | 6순위 | 기타                            | 51명 (2.2%)     |

## 📖 (4번 문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 복수(2개) 선택하는 설문을 실시함.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①‘도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관련 분야에 채용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②‘기초학력 보장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내실화’ 순으로 응답하였음.

(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복수 선택)

| 구분  |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
|---|--------------|--------------|--------------|
| 도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관련 분야에 채용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 124명 (13.7%) | 920명 (25.1%) | 443명 (19.2%) |
| 기초학력 보장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내실화           | 118명 (13.1%) | 676명 (18.4%) | 347명 (15.0%) |
| 지역특화산업수요에 맞는 특성학교 운영                      | 74명 (8.2%)   | 485명 (13.2%) | 262명 (11.4%) |
| 교육자치에 필요한 재정 확보                           | 93명 (10.3%)  | 443명 (12.1%) | 393명 (17.0%) |
| 농어촌유학 활성화                                 | 79명 (8.8%)   | 123명 (3.4%)  | 100명 (4.3%)  |
|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한 자율학교 운영                   | 117명 (13.0%) | 476명 (13.0%) | 245명 (10.6%) |
| 글로벌 이민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마련                  | 47명 (5.2%)   | 65명 (1.8%)   | 93명 (4.0%)   |
| 인증받은 지역 로컬푸드를 사용한 학교급식 제공                 | 80명 (8.9%)   | 99명 (2.7%)   | 50명 (2.2%)   |
| 학생과 도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 79명 (8.8%)   | 264명 (7.2%)  | 144명 (6.2%)  |
| 교육행정기관 설치 자율성 확대                          | 29명 (3.2%)   | 34명 (0.9%)   | 56명 (2.4%)   |
| 교원 인사 자율성 확보                              | 26명 (2.9%)   | 31명 (0.8%)   | 115명 (5.0%)  |
| 학생 재배치를 위한 학교 이전교부금 확보                    | 29명 (3.2%)   | 34명 (0.9%)   | 38명 (1.6%)   |
| 기타  | 7명 (0.8%)    | 16명 (0.4%)   | 20명 (0.9%)   |

■ 1순위 ■ 2순위



## Ⅲ

## 시사점

### 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앞으로  
추구 했으면 하는  
방향은 '소통'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공통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앞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방향'에 대하여 '소통'을 가장 강조하였음.
- 교육공동체가 제시한 '소통'을 중심으로 '공정, 창의성, 협력, 다양성, 지속가능성' 등의 주요 가치를 어떻게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2

'생태전환교육'와  
'디지털융합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중점으로 두어야 할 교육분야로, 학생과 학부모는 '디지털융합교육'을 교직원은 '생태전환교육'을 각각 선택하였음.
- 다른 교육분야 역시 중요도가 낮지 않다고 보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융합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중점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3

학생, 학부모, 교직  
원별 주체에 따른  
교육정책 추진의  
다원화 필요

- '글로벌교육'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인식이 일부 일치하였지만,
-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에 각 교육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음.
- 그러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주체에 따라 교육정책 추진을 다원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4

다양한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지속  
적인 전북교육  
가족의 의견 수렴  
필요

-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공통적으로 ‘도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과 ‘기초학력 보장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내실화’를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음.
- ▣ 이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차별성 있고 다양한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

## 제12회 콜로키움 현장 의견과 제안

※ 아래 의견과 제안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콜로키움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 ▣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콜로키움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여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 콜로키움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학교 현장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음
- ▣ 디지털융합 관련 교육, 학교폭력 사인 처리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기초학력 보장, 해외 연수 기회 확대 등의 설문 결과는 도교육청 핵심 사업인 미래교육, 기초학력 책임,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학생 해외연수, 문·예·체교육 강화 등의 정책 추진과 일맥상통하고 있음. 정책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배려, 의견 공유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디지털융합 관련 교육, 글로벌(국제) 관련 교육, 생태 전환 교육이 많이 선택됨. 이는 현재 교육계의 화두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 이에 관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차별화된 교육 분야 개발이 특히 더 필요해 보임
- ▣ 전북특별자치도 도입 목적인 생명경제 국제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생명·탄소중립 주제 관련 교재·자료를 제작, 교과목 재구성 등을 통한 지역 특색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전북에 입주한 농·축·식품·생명 관련 다수의 공공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진로·진학 교육 내실화, 지역특화 산업수요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 글로벌(국제)교육 관련 외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차원에서 1학기, 1개월 이상의 유학이 가능한 국외 교류 협력 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 강구도 필요해 보임
- ▣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전라북도 인재 육성 공동목표 수립 및 교육 방향 공유 필요

▣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닌작성자의 견해를 밝힙니다.  
 ▣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은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누리집[교육정책연구-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바로가기